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August 2014 vol.113

이달의 이슈

청년일자리 실태와 대안
김군수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김수현

생생리포트

청년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청년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장정규
인포그래픽스
서울에서 신설법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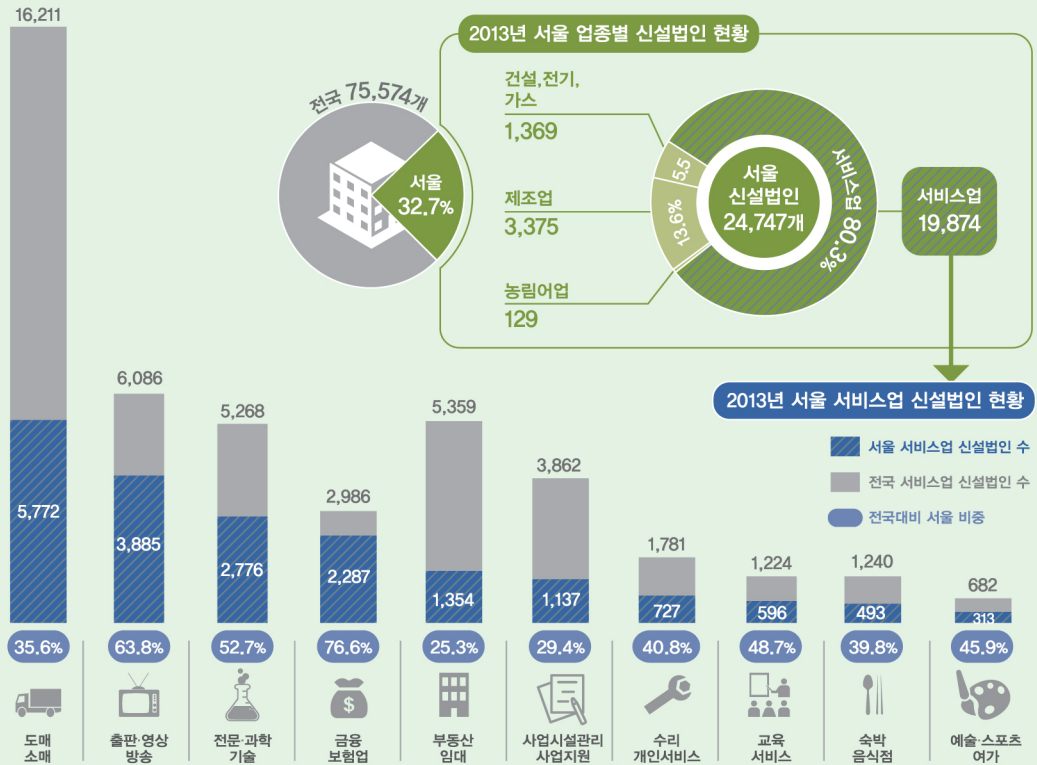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서울에서 신설법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2013년 서울 신설법인 수는 24,747개로 전국의 32.7%

'서비스업'이 19,874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80.3%를 차지하며, 서울은 전국에 비해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



이달의 이슈	3	청년일자리 실태와 대안 김군수(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11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김수현(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생생리포트	23	청년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청년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장정규(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기획연구팀)
	31	서울에서 신설법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경제동향	37	요 약
	39	생 산
	41	소 비
	42	고 용
	45	물 가
	46	부동산
	48	금 융
	56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청년일자리 실태와 대안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kimks@gri.re.kr

1. 심각한 청년고용 실태

청년고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 취업자수는 2003년 22,139천명에서 2013년 25,066천명으로 10년간 2,927천명(13.2%) 증가하였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수는 동기간 4,606천명에서 3,793천명으로 10년간 813천명(17.7%)이나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총 취업자수는 2003년 4,753천명에서 2013년 5,097천명으로 10년간 344천명(7.2%)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취업자수는 동기간 1,167천명에서 881천명으로 10년간 286천명(24.5%)이나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감소폭은 전국 평균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 서울시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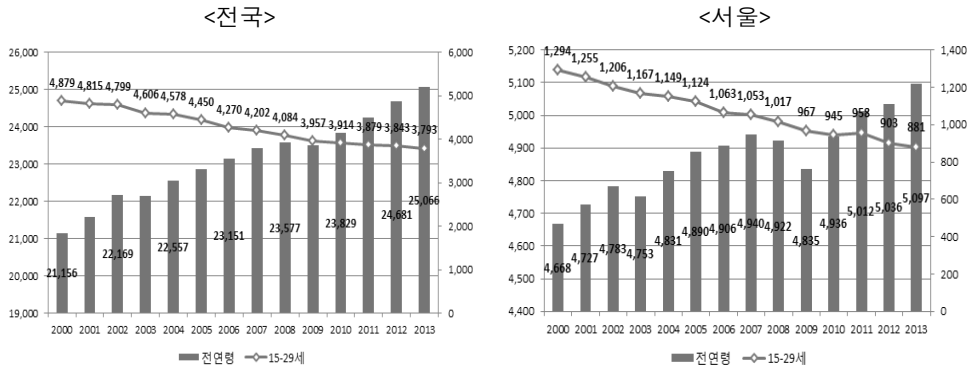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 연령 평균 고용률은 2003년 59.3%에서 2013년 59.5%로 10년간 0.2%p 소폭 상승하였으나 청년층의 고용률은 동기간 44.4%에서 39.7%로 4.7%p나 하락하였다. 청년 고용률은 OECD의 평균수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의 전 연령 평균 고용률은 2003년 59.2%에서 2013년 59.8%로 0.6%p 소폭 증가하였으나 청년층의 고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도시지역경제학 박사
- 청년일자리거점 : 복합지식산업센터(2014), 기로에 선 동아시아 경제(2014), 중견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2013) 등

용률은 동기간 48.1%에서 43.3%로 10년간 4.8%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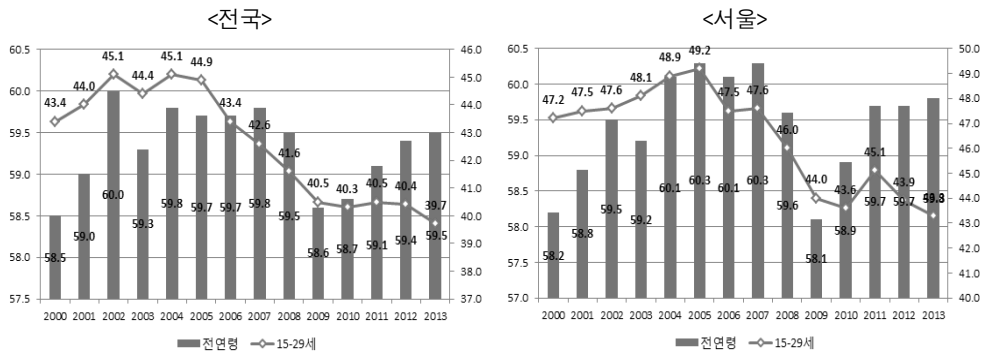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취업자』.

[그림 1] 연령별 취업자수 변화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연령별 경제활동인구』.

[그림 2] 연령별 고용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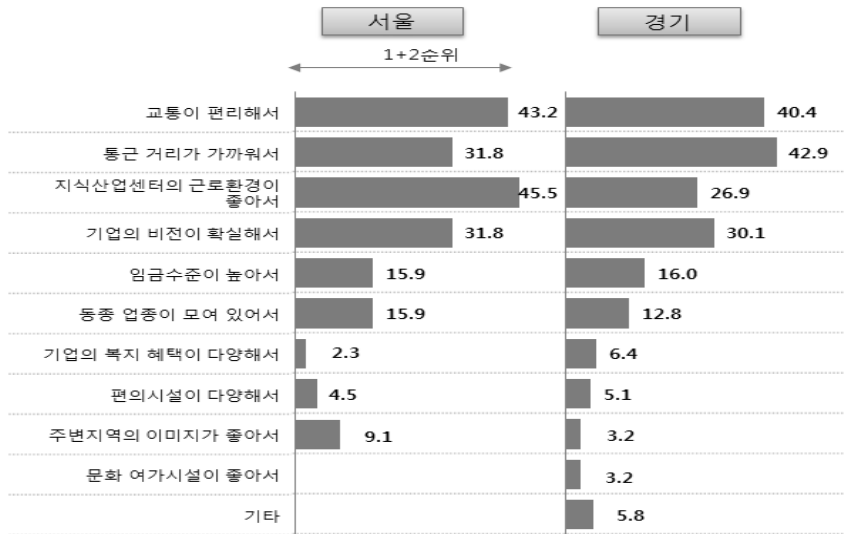
2.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

청년고용의 부진은 첫째 일자리수요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2013년 전국기준으로 청년층의 실업자 중에서 52.7%는 일자리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¹⁾.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연령층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1) 김울식(2012). 『한국의 고용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 경기개발연구원 에서 인용함.

둘째 청년고용의 부진은 연봉, 업종, 직종, 근무환경 등의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된다. 전국기준으로 청년층의 실업자 중에서 47.3%는 일자리 미스매치로부터 기인한다. 경기개발연구원²⁾에 따르면, 중소기업체에서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연봉은 2,184만원이고, 구직자가 희망하는 연봉수준은 3,299만원으로 약 1,100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기업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직무는 “기술/기능직”이 57.8%로 가장 많았으나, 구직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무는 “사무직”(50.3%)으로 나타나 직무 불일치가 발생한다. 또한 업종에서도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업종,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 방송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선호한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은 청년층의 취업기피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환경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환경, 교통여건, 기업비전이 청년층의 주요 취업매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텔리전트 빌딩 형태의 지식산업센터에 취업한 20-30대 청년층들은 서울의 경우 근로환경(45.5%), 교통의 편리(43.2%), 통근거리(31.8%), 기업의 비전(31.8%)을 가장 중요한 취업 이유로 응답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그림 3] 지식산업센터에 취업한 이유(청년층 설문, %)

2) 김울식(2012). 『일자리창출의 난제 : 평행선을 달리는 중소기업과 청년』, 경기개발연구원 에서 인용함.

3.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과 업종

청년층은 단순 기능직 및 노무직 관련 직종보다는 관리직, 전문직 및 사무직을 선호한다. 실제로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관리자·전문가’ 로의 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31.8%를 차지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관리자·전문가’ 비중인 21.0%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무종사자’ 로의 취업 비중은 26.7%로 두 번째로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비중과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등의 저소득·육체노동 관련 직업의 청년층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인다.

[표 1] 전국의 전체취업자와 청년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비교(2013. 05, %)

구분	계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 취업자	100.0	21.0	16.6	22.0	6.3	20.7	13.3
청년층 취업자	100.0	31.8	26.7	20.1	1.0	13.5	6.9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취업현황을 보면, 청년층의 취업은 제조업보다 지식서비스업에 보다 많이 편중되어 있고, 제조업 중에서는 전자부품,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업종 등 첨단제조업종에 취업이 편중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8%를 차지하고 있는 데, 특히 전자부품업종에 20.3%, 의약품업종에 19.1%, 의료정밀기기 업종에 16.0%를 차지하는 등 첨단제조업종에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 20대의 비중은 13.5%로 전국 평균인 12.8% 보다 0.7%p 높은 편이다. 특히 의약품(23.2%)과 의료정밀기기(22.5%) 업종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2] 제조업의 20대 종사자수 분포 (2012년 기준)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제조업 평균	12.8	13.5
식료품 제조업	8.6	10.4
음료 제조업	9.4	11.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9.1	12.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5	12.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3	15.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8.4	18.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1.3	16.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8	15.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5	9.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6	17.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9.1	2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2	13.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7	12.1
1차 금속 제조업	12.3	5.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1	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3	17.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0	22.5
전기장비 제조업	14.6	1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7	1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0	5.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2	6.7
가구 제조업	8.0	11.5

자료 : 통계청(2012). 『중소기업실태조사』.

반면에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중에서 20대의 비중은 22.1%를 차지하여 제조업보다 9.3%p 높게 나타난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 20대 취업비중이 높은 업종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39.2%, “게임 소프트웨어 개

발 및 공급업” 33.3%,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0.4%, “전문디자인업” 28.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들 업종들은 청년들에게 일 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³⁾는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 업체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입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전문직과 사무직 등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촉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전국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연령별 종사자수 분포 (2012년 기준)

(단위 :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식기반서비스업	22.1	44.4	23.4	8.3	1.8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3.3	54.0	11.0	1.3	0.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2	51.6	20.4	3.5	0.3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0.4	46.0	19.1	3.9	0.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제작 관련서비스업	39.2	40.1	16.7	3.7	0.3
전기통신업	21.5	50.7	20.2	6.9	0.7
컴퓨터프로그램, 시스템통합및관리업	25.6	47.4	23.0	3.7	0.3
자료처리, 포털 및 기타인터넷정보매개 서비스업	25.2	48.5	21.6	3.9	0.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1.0	56.3	18.1	4.2	0.4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20.2	41.2	26.2	10.8	1.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4.3	36.4	34.1	5.0	0.2
경영컨설팅업	18.3	42.0	25.2	13.1	1.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3	38.8	25.0	13.8	5.1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8.4	38.3	26.6	12.4	4.3
전문디자인업	28.2	42.8	22.5	5.6	0.9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5.9	36.8	25.0	11.1	1.2
온라인 교육 학원	29.6	51.2	15.3	3.4	0.5

자료 : 통계청(2012). 『중소기업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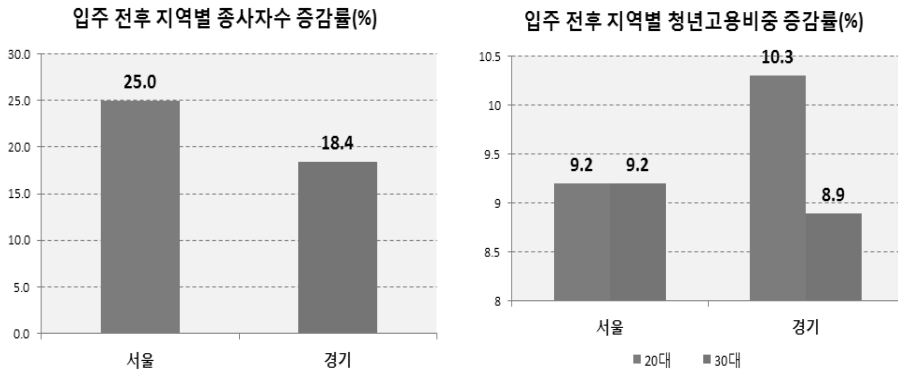
3)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된다.

4. 청년층의 미스매치 해소의 대안,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 전에 비해 20대와 30대 종사자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여 청년층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하기 전보다 종업원수가 평균 25.0%(3년 평균)나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다. 서울시 전산업 종사자수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간 약 8.7% 증가하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총고용 증가율이 매우 빠른 가운데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청년일자리 확대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하기 전보다 20대 청년층 고용비중이 9.2% 증가하였으며, 30대 고용비중도 9.2% 증가하였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이후 20-30대 청년고용 수급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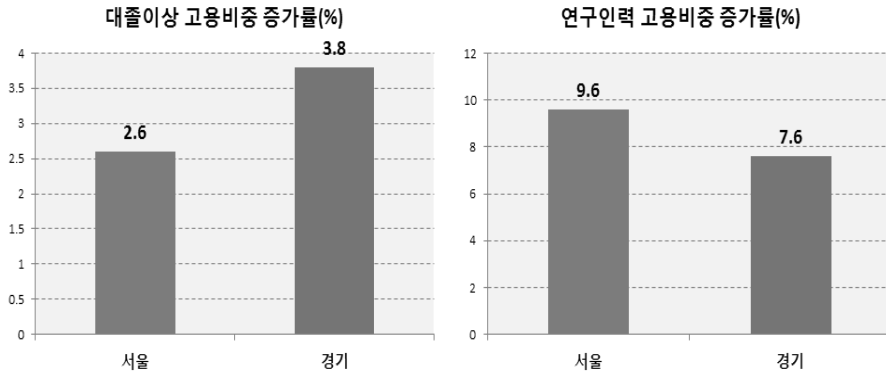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그림 4] 지식산업센터 입주전후 기업별 청년고용 창출 효과

또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은 입주 전에 비해 대졸이상 고학력 고용과 연구개발직 고용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급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하기 전보다 대졸이상 고용비중이 2.6%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직 고용비중은 9.6%나 증가하였다.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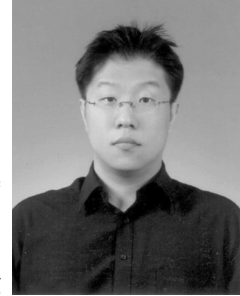
[그림 5] 지식산업센터내 입주기업들의 고급일자리 창출 효과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청년일자리의 미스매치 원인인 업종, 직종, 근무환경 등에서의 구인-구직 간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군수(2014), “청년일자리거점 : 복합지식산업센터”,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149호.
- 김을식외(2012). “한국의 고용현황과 일자리 미스매치”,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49호.
- 김을식외(2012). “일자리창출의 난제 : 평행선을 달리는 중소기업과 청년”,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75호.
-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경기개발연구원(2014.05). “지식산업센터 입지환경 및 취업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
- 통계청(2012). 『중소기업실태조사』.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sida7@saesayon.org

1.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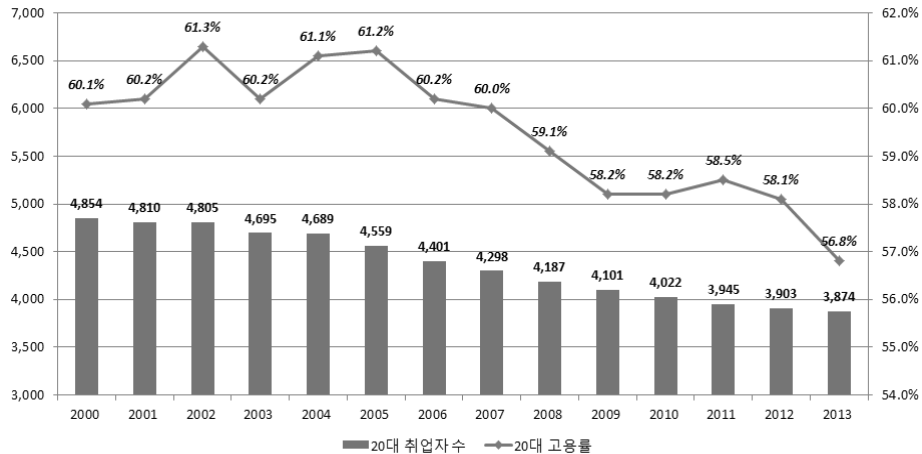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청년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김수현, 2013; 김수현강세진최정은, 2014)
 - 최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결과만은 아님.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문제임
 - 1997년 500만 명이 넘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387만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고용률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61.2%였던 고용률은 2013년 56.8%까지 감소함
 - 즉,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감소하고 있음. 이는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청년층 취업자 수, 청년 일자리가 감소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
-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 세 방향과 과제 연구(공동연구,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2014), 새 시대에 맞는 경제 교과서(공동연구, 전라북도교육청), 분노의 숫자(공저, 동녘출판, 2014) 등

하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 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좌측 축, 고용률은 우측 축 참조

[그림 1]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 서울시 역시 청년고용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서울시 역시 정부,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 청년 일자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00년 119만 5천 명이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3년 84만 1천 명으로 35만 4천명이나 줄어들었고, 고용률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함
- 앞서 살펴본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청년층 취업자,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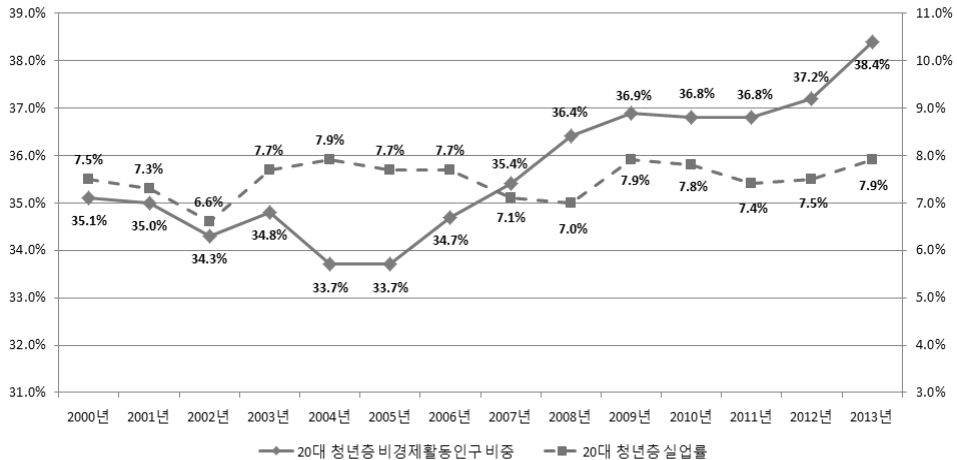
○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는 청년빈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로 인해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하기도 함. 최근에는 대학학자금으로 인한 부채,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청년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는 해당 세대 청년들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빈곤상황이나 신용 불량 상황에 처하게 되는 청년들의 경우 이후에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클 것임
- 지금과 같은 청년고용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직장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 숙련 축적을 저해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의 감소는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함께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음. 이 역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2.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문제

-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문제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중요한 요인임
 -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청년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 아님
 -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층 실업률은 7.9% 수준으로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하지만 고용률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임
 - 2000년 이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의 증가는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주: 실업률은 좌측 축 참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우측 축 참조

[그림 2] 20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및 실업률 (단위 : %)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은 경제위기나 경제침체기에도 7%대를 유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청년층 인구감소보다 취업자의 감소가 더 빨라져 고용률의 하락이 두드러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추세 역시 더욱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최근 청년층 고용률 하락에 있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반영함

○ 서울 역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청년고용문제의 중요한 원인임

- 서울에서 역시 실업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청년고용문제가 심화되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음
- 하지만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감소하는 2005년 이후부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05년 33.7%에서 2013년 38.4%까지 증가함. 8년 사이 4.7%p가 상승한 것임
- 이는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청년고용문제에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반영함

3.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의 원인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층 노동수요 감소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노동 수요의 변화는 최근 청년일자리 감소의 직접적,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1997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지금의 남유럽 경제위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인해 해고가 어렵고 생산현장 투입을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청년층보다 해고가 용이하고 곧바로 생산현장의 투입이 가능한 비정규 경력직의 고용을 더 선호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세계화로 인한 전지구적 수준으로의 경쟁 격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더 낮은 생산비용을 통해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임금과 복지지원 수준이 낮고, 해고가 용이하며, 생산현장 투입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정규 경력직을 선호하게 하고 있음
- 경기침체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침. 경기침체 국면에서 청년들은 가장 먼저 해고되고,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줄임(Kawaguchi and Murao, 201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세계화, 경기침체 등과 같은 외부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청년고용보다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킴
- 청년층 일자리 감소는 청년층 실업자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들의 구직포기로 이어질 경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임
-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비정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등 청년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는데, 이 역시 노동공급측면의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청년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음
- 주요 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능력 약화 역시 청년고용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 기존 정부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산업들이 자본집약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는 감소하였음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 악화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
 - 불확실성의 증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도 영향을 미침
 -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생계비, 의료비, 그리고 자녀 교육비는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층을 더욱 증가시켰음
 -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과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증대시켰고,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소득이나 노동환경을 원하는 청년들의 노동공급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음
 - 아래 [표 1]은 통계청의 각 연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것임. 이는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임금증가 속도도 느렸으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큰 청년일자리 현실을 보여줌
 - 또한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 일자리에서도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수는 37만 7천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4만 2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2012년 8월 20대 청년층 중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하는 이들의 규모는 41만 9천 명이었음.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8월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중 20대 청년층의 비중은 17.2%로 전년동월에 비해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 중 청년층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줌

** 여기서는 김유선 (2013)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측정하고 있음. 이는 고용지위상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본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비정규직과 차이가 있음

[표 1]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특성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월평균임금 (만원)	127.3	132.2	138.1	146.8	144.1	150.6	155.4	160.4	164.0
정규직 (천명)	1,629	1,660	1,740	1,725	1,632	1,653	1,711	1,592	1,550
비정규직 (천명)	2,142	2,029	1,930	1,822	1,837	1,761	1,716	1,738	1,759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56.8	55.0	52.6	51.4	53.0	51.6	50.1	52.2	5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 각 연도 8월 자료 이용 추산

-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현실은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 라는 용어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취업을 해도 연예도, 결혼도, 출산도 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더욱 노동시장에서 멀어지고 있음
- 소위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을 통해 취업 시기를 늦추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준비에 전념하는 청년들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니트(NEET)족 등 청년 실망실업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4. 청년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 필요
 -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은 청년고용문제의 핵심임. 경제위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청년층에 대한 수요 감소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됨
 -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정책은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줄어든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이전 정부 역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청년창업지원과 청년인턴제 등 자영업 형식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상대적으로

로 좋지 않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정책은 단기적으로 노동지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함

- 좋지 않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공급 측면에 치중된 정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해결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자발적인 노동공급 증대와 함께 노동수요를 확대시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청년고용할당제와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

- 이와 관련해 청년고용할당제는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임.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률을 부과하는 이 제도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촉진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든 것이 사실임.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규제 방안을 두어 대기업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함
- 청년고용할당제와 노동시간단축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긴 편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한편, 고용 증대라는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줄 것임
-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 역시 청년고용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사회서비스산업은 민간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대되어 온 산업임
-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정부 개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민간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임
- 또한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지금까지 민간에만 맡겨둬 좋지 않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던 사회서비스산업의 현실을 바로잡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임. 정부,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선도함으로써 민간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도록 할 수 있음

- 실업부조 등 사회적 안정망과 결합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 NEET족,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European Foundation, 2012)
 -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숙련을 익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로운 막연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접하고 그 일에 필요한 숙련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실시되어 왔던 민간교육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닌, 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조가 참여해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직장연계시스템에 대한 참여를 통해 숙련향상과 구직기회 확대를 확대시키는 한편, 실업부조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 또한 실업부조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과 결합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최근 늘고 있는 청년층 빈곤,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한편, 청년들의 숙련 향상을 돕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김수현 (201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증가의 문제점과 원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2014) 서울 청년일자리 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 김유선 (201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4.3)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Eurofound (2012) NEETs -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 Kawaguchi, D. and Murao, T. (2012) "Who Bears the Cost of Business Cycle? Labor-Market Institutions and Volatility of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ZA Journal of Labor Policy, 1 (10), 1-22.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생생리포트

■ 청년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청년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장정규(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기획연구팀)

청년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청년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장정규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기획연구팀 매체홍보담당

soot@youthhub.kr

I.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개관과 배경

1. 서울혁신파크
2. 청년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 모색

II. 청년일자리 정책 혁신

1.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2. 서울JOB스 운영

III. 청년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

1. 청년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2. 현장기반 인재양성 청년학교 운영
3. 일자리모델 프로젝트 지원

I.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개관과 배경

1. 서울혁신파크

-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는 2013년 4월 11일 개관하였으며, 서울혁신파크(舊 질병관리본부, 은평구 녹번동) 내 위치함
-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현재 청년허브 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기구들이 자리하고 있음

2. 청년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 모색

- 낮은 취업률, 경제활동인구 감소, 3포(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 등으로 표현되는 청년세대가 처한 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 기존의 청년일자리 정책 혁신, 청년의 자구(自救)적이며 사회참여적인 활동 활성화, 협력과 자활을 이룰 수 있는 관계망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도

II. 청년일자리 정책 혁신

1.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이란 서울시가 공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발굴을 연계,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 비어있는 영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생성하는 ‘서울 청년뉴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허브가 2013~14년에 걸쳐 주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문제 해결, 비영리 공익활동,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일 경험과 진로를 탐색하는 청년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계
- 단기 근무가 아닌 경력형성을 위한 최대 11개월의 장기로 운영하며 직무 교육, 주요 프로젝트 수행, 합리적 고용승계 등을 위해 사업장과 참여자 밀착 관리

<표 1> 2013년도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결과

사업장 수	참여자 수	고용승계	창업 및 타 사업장 취업
20개	117명	37% (43명)	15% (18명)

<표 2> 2014년도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현황 (7월 15일 현재)

사업장 수	참여자 수	교육훈련	현장방문
46개	143명	공통교육 4회 72시간, 현장심화교육 29회 112시간	101회

- 2014년도 45개 사업장을 통해 양성하고 있는 청년 직업군 모델은 클라우드소싱 활동가 (융합형 지식사회서비스), 로컬이노베이션 활동가(지역문제해결), 청년NPO활동가, 사회적경제활동가, 공유경제활동가,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2. 서울JOB스 운영

- 청년의 일자리 탐색 비용 증가, 중소기업의 구인 수요와 청년의 구직 요구 사이의 정보 미스매치 확대, 구직자 친화형 일자리 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
- 구인 기업(강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의 질적 정보,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 서울JOB스(<http://seouljobs.net>) 운영
- 7월 24일 현재 운영기간 7개월, 구인정보 콘텐츠 당 평균 조회수 900회, 최대 조회수 3,500회 기록

III. 청년의 사회적 활동 활성화

1. 청년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청년의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고 일자리 네트워크,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참’ 운영
- 3인 이상 커뮤니티에 최대 100만원 지원, 사사분기 제외 월 20~30팀 선정

〈표 3〉 2013년도 ‘청년참’ 선정 커뮤니티 활동 분야와 개수

활동 분야	커뮤니티 수	총계
공예 / 출판 / 미디어	16개	총 112개 커뮤니티 선정, 활동 지원 (참여인원 약 600명)
복지 / 봉사 / 지역	19개	
환경 / 생태 / 정치	15개	
공연 / 영화 / 영상	20개	
문화 / 기획 / 이벤트	19개	
학습 / 기행 / 기타	23개	

-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크 파티(커뮤니티 반상회) 매월 1회 개최,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15회 진행, 매회 평균 약 200명 참가

2. 현장기반 인재양성 청년학교 운영

-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현장에 기반하며 사회적, 공공적 활동과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청년 인재 양성 학교 운영
- 2013년 총 7개 학교(지역자치, 협동경제, 들보잡 문화, 새로운 산업, 생산혁신, 도시재생, 청년허브YLA) 개설, 167명 학생 참여
- 2014년 상반기에는 현장 변화를 기초하여 총 6개 학교(국제교류, 도시재생, 들보잡 문화, 세바시청년, 지역청년성장, 공간디자이너) 개설

〈표 4〉 2013년도 각 학교별 주요 커리큘럼 및 프로젝트

학교명	주요 커리큘럼 및 프로젝트
지역자치	마을자치와 의제, 조례와 예산, 성미산 마을 등 탐방
협동경제	협동경제학, 협동조합 사업 기획, 협동조합 사례 방문
들보잡 문화	아트워크, 공동체 텃밭 디자인, 카페와 마켓 운영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 이론,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지식 플랫폼
청년허브YLA	인문학, 경영학, CEO특강, 사회봉사 활동
생산혁신	인문디자인, 브랜딩과 마케팅, 도심 제조업 현장 리서치
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현장답사, 커뮤니티 디자인

3. 일자리모델 프로젝트 지원

- 일자리모델 프로젝트 지원은 청년단체 공간 지원, 청년활동 프로젝트 지원, 워킹그룹 프로젝트 지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청년단체 공간 지원은 ‘미단이사무실’ 이라고 명명한 청년허브 시설 내 사무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매해 사용 연장 또는 신규 선발 과정을 거침
- 청년활동 프로젝트 지원은 청년커뮤니티 또는 청년단체가 그간 지속해온 활동을 체계화 하며 일자리모델 전환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프로젝트에 5백만~1천만원 사이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임
- 청년활동 프로젝트 지원은 2013년 19개 단체, 2014년 상반기 11개 단체, 2014년 하반기 13개 단체를 공모와 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 지원함

<표 5> 2013년도 청년활동 프로젝트 지원 단체 (일부)

단체명	프로젝트
레디앤스타트	직업정보 제공,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잇다’ 운영
사회적기업가포럼	청년 사회적기업 정보 교류, 기업가 교육 콘텐츠 개발
수산업	손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수작업 워크숍 개최
어반비즈서울	도시양봉 1차 산업과 관련 교육 사업
우리동네	아르바이트 및 주거상담센터 운영, 청년 사회적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노아	청년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기업 협업 플랫폼 개발
청년마을연구소	영상제작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한 마을청년일자리 발굴

- 워킹그룹 프로젝트 지원은 확산 가능한 사회적 모델, 인프라를 활용하는 본격적인 일자리모델 창출 사업 지원으로 2013년 공모형 8개, 자체기획형 5개, 총 13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들의 사업비 및 컨설팅을 지원함
- 워킹그룹 프로젝트 지원은 2014년도에는 공모 없이 종로4가 지하상가 청년가게 활성화, 동대문/DDP 주변지역 청년활동 활성화, 서울JOB스 프로젝트에 집중해 청년일자리 사회적 모델 연구 및 개발 과정을 지속함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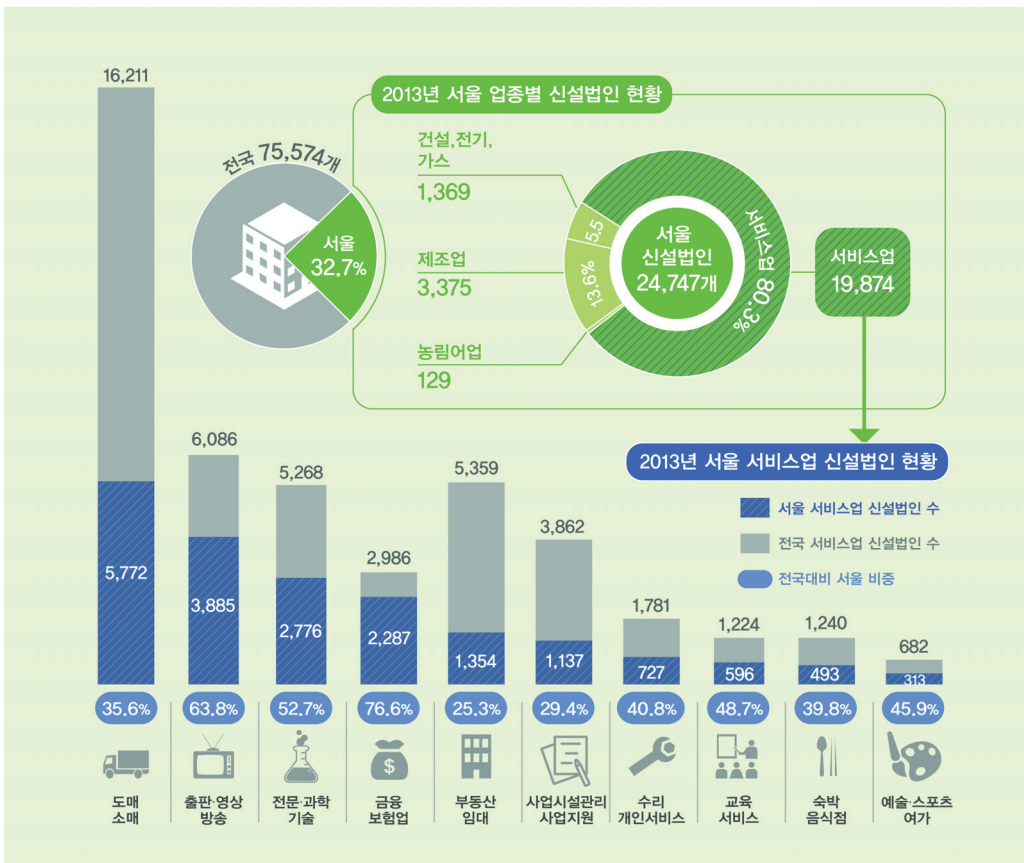
■ 서울에서 신설법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박희석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센터장)

장윤선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서울에서 신설법인이 가장 많은 업종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2013년 서울 신설법인 수는 24,747개로 전국의 32.7%

‘서비스업’ 이 19,874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80.3%를 차지하며, 서울은 전국에 비해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

- 서울 전체 신설법인 수는 24,747개로 전국의 32.7% 차지하며, 업종은 ‘서비스업’이 가장 많음
 - 2013년 전국 75,574개 신설법인 중 24,747개(32.7%)가 서울에서 형성
 - 서울 신설법인 24,747개 중 서비스업이 19,874개(8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3,375개(13.6%), 건설, 전기, 가스관련 산업 1,369개(5.5%) 순

- 서울은 전국에 비해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 ‘전문·과학·기술’ 등 지식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
 - 전국대비 비중은 ‘금융·보험업’ 76.6%, ‘출판·영상·방송’ 63.8%, ‘전문·과학·기술’ 52.7%순으로 서울에는 지식서비스업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음
 -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도매·소매’가 5,772개(23.3%), ‘출판·영상·방송’ 3,885개(15.7%), ‘전문·과학·기술’ 2,776개(11.2%) 순

<표 1> 2013 업종별 신설법인 현황

(단위: 개, %)

	2013			
	서울	비율	전국	전국 대비 서울 비율
농업,임업,어업 및 광업	129	0.5	1,637	7.9
제조업	3,375	13.6	18,721	18.0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1,369	5.5	7,780	17.6
서비스업	19,874	80.3	47,436	41.9
서울 전체	24,747	100.0	75,574	32.7

〈표 2〉 2013 서비스업 신설법인 현황

(단위: 개, %)

	2013				전국대비 비율	서울 비율
	전국	서울	서울에서	비율		
도매 및 소매업	16,211	5,772		23.3	35.6	
숙박 및 음식점업	1,240	493		2.0	39.8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86	3,885		15.7	63.8	
금융 및 보험업	2,986	2,287		9.2	7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359	1,354		5.5	25.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268	2,776		11.2	5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862	1,137		4.6	29.4	
교육서비스업	1,224	596		2.4	4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82	313		1.3	45.9	
협회및 단체,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	1,781	727		2.9	40.8	
기타	2,737	534		2.7	19.5	
소계	47,436	19,874		100.0	41.9	

주: 서비스산업 중 운수업,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자료 : 2013년 신설법인 동향 업종별·지역별 신설법인수 (중소기업청)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요약 | 6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6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1.9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6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9.6% 각각 증가하여 경기확장기

소 비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9,921억원으로 전국(5조9,507억원)의 33.5%를 차지
- 6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5.7% 증가

고 용

- 서울의 6월 취업자는 513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1%)이 감소
- 서울의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물 가

- 2014년 6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남지역(-0.09%)과 강북지역(-0.05%) 모두 전월대비 하락, 특히 용산구(-0.32%)와 강서구(-0.22%)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7% 하락
- 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북지역(0.19%) 특히 동대문구(0.35%)와 광진구(0.34%)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9% 상승

금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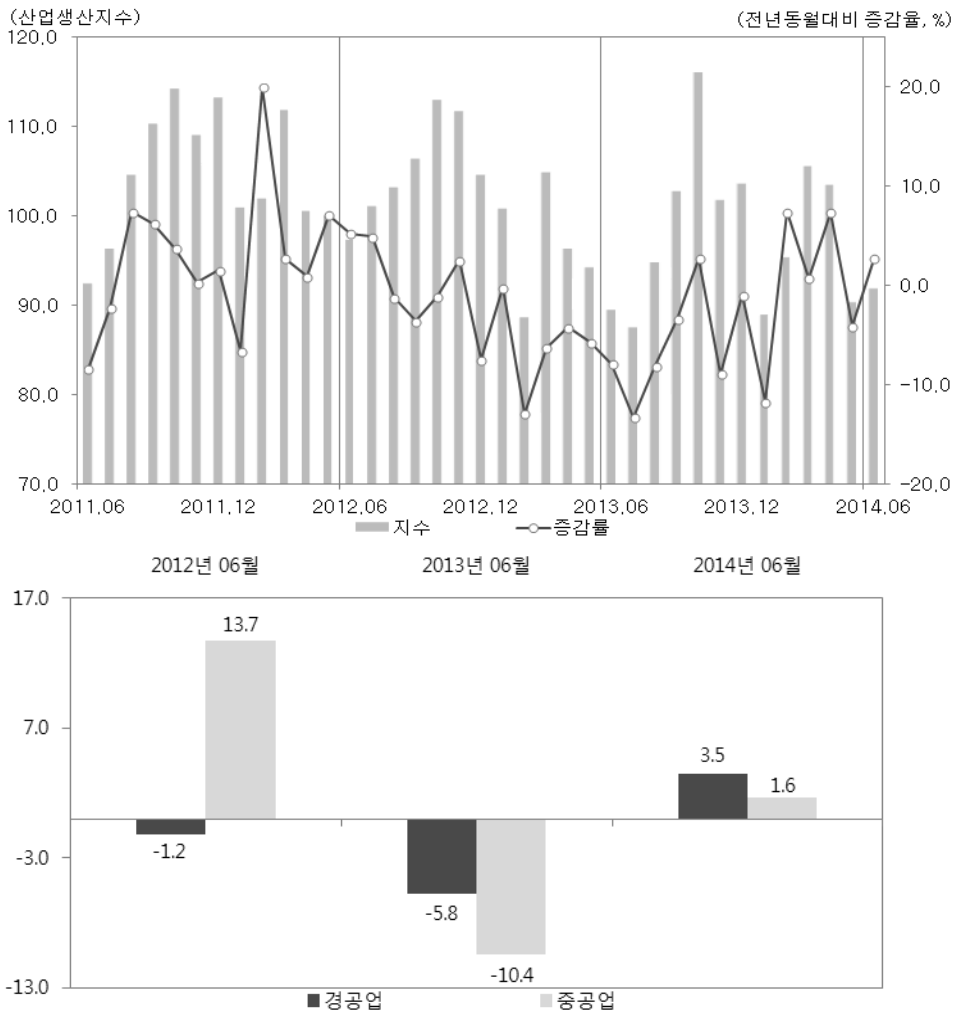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80조 7,097억 원으로 전월대비 0.001% 감소, 그 중 가계대출은 180조 5,806억 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
- 서울의 6월 신설법인수는 2,284개로 전월대비 8.6% 증가
- 서울의 6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2.8% 감소

수 출 입

- 서울의 6월 수출은 5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6월 수입은 11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2014년 6월 제조업생산지수 91.9(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공업구조별로 중공업과 경공업 부문 모두 각각 전년동월대비 1.6% 3.5% 증가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전기장비(48.9%), 기계장비(30.6%), 의복 및 모피(5.5%) 등 증가, 화학제품(-56.1%), 의료정밀광학(-28.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3.0%)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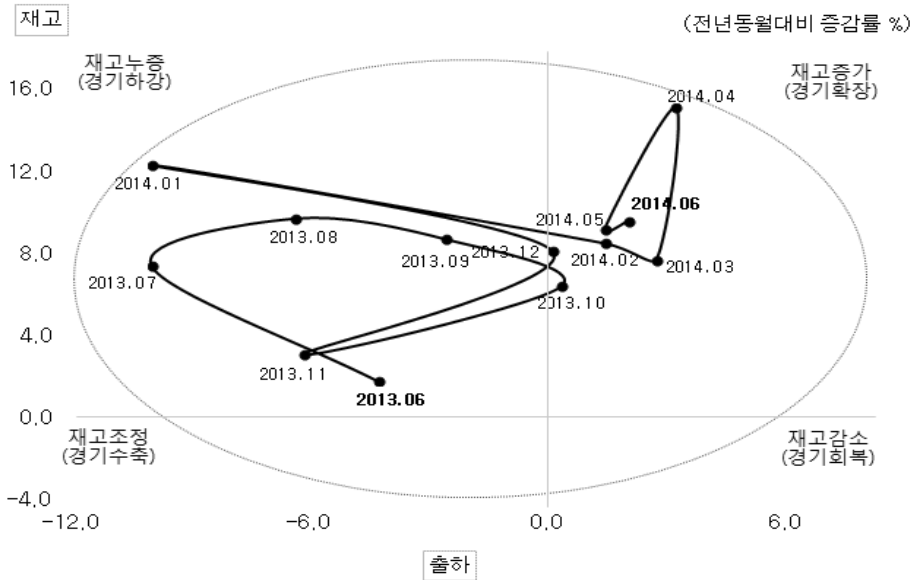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6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
 - 서울의 6월 출하지수는 96.6(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서울의 6월 재고지수는 115.2(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9.6% 증가
 - 출하, 재고 상승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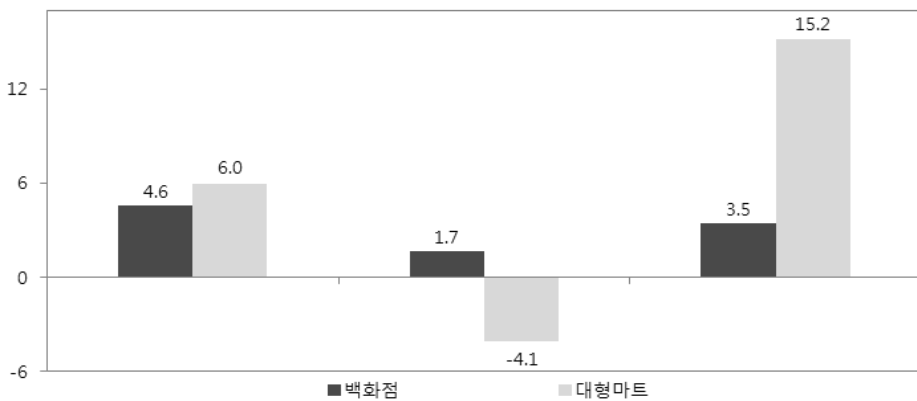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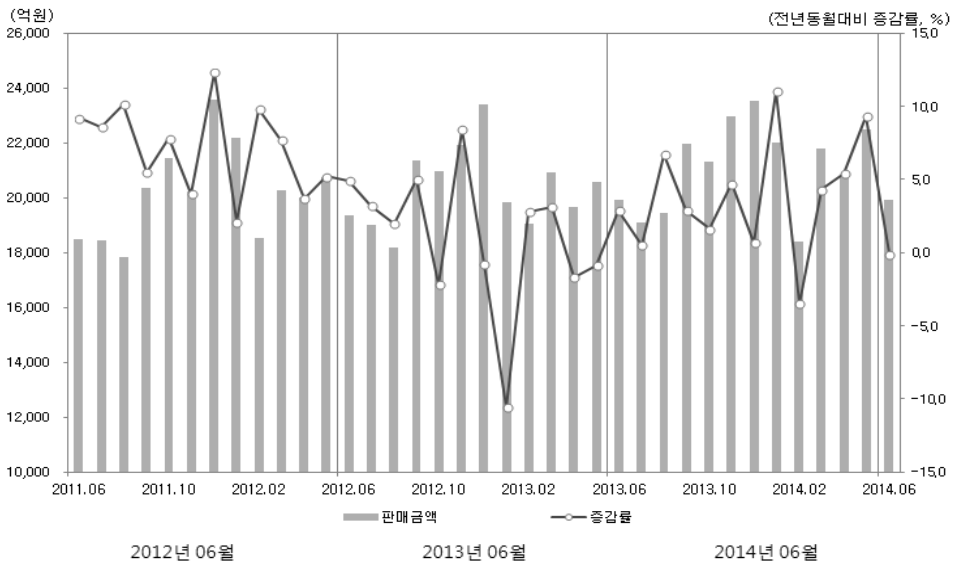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9,921억원으로 전국(5조9,507억원)의 33.5%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2억원으로 전국(2조1,993억원)의 45.5%, 대형마트 판매액은 9,9919억원으로 전국(3조7,514억원)의 26.4%를 차지
- 서울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1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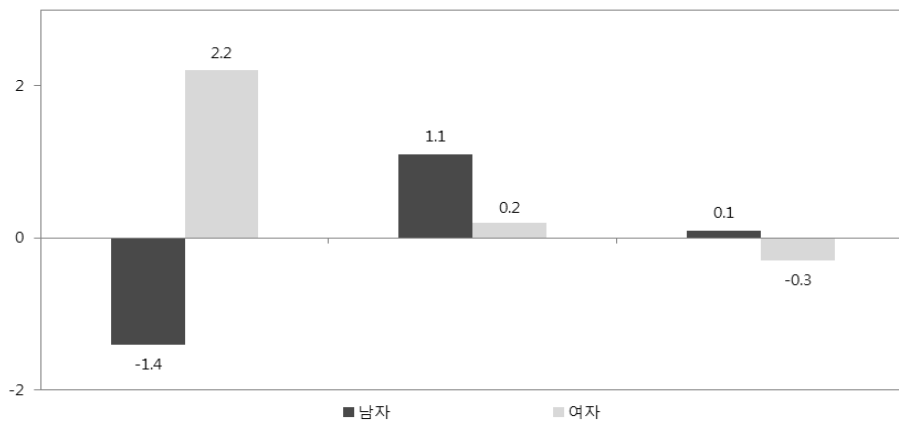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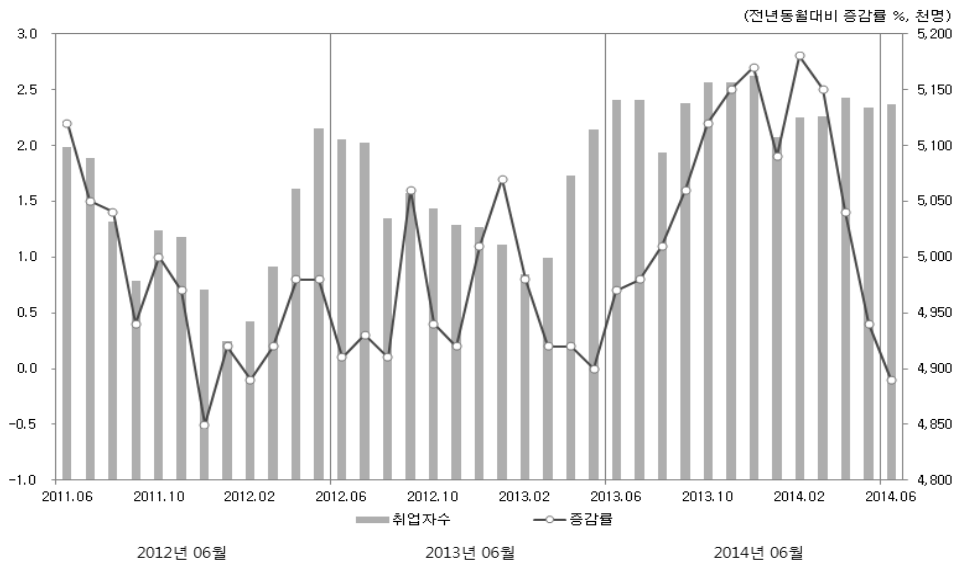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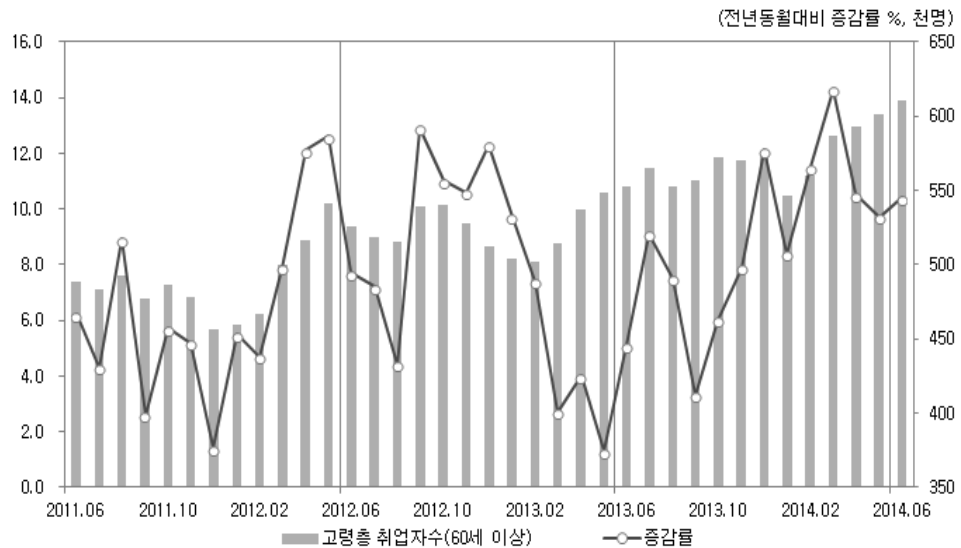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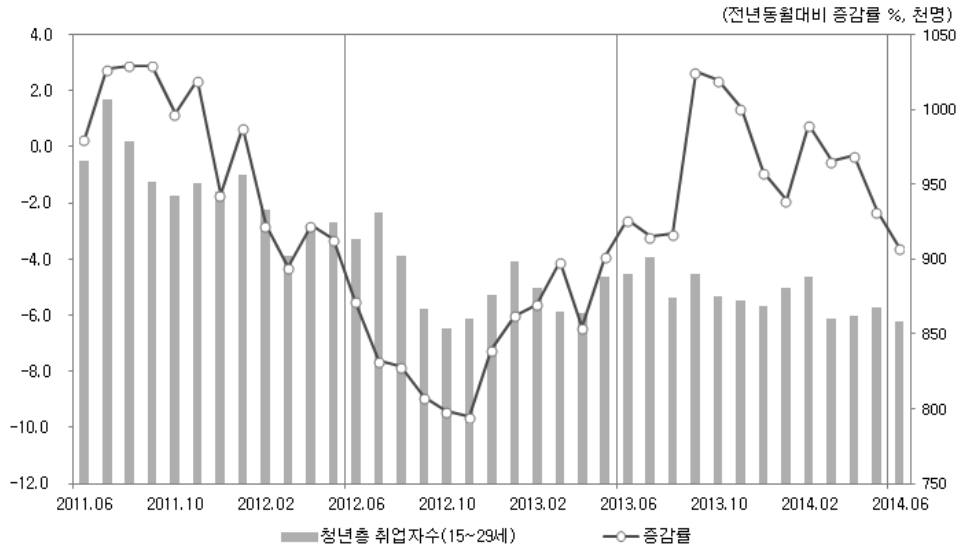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 서울의 6월 취업자는 513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0.1%)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5천명, 여자는 226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만명(0.1%) 증가, 여자는 6천명(-0.3%) 감소
 -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업 6만3천명(4.7%), 제조업 2만6천명(5.7%)이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6월 청년층(15세~29세) 증감률은 마이너스, 고령층(60세 이상)은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6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5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서울의 6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6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청년층의 취업 증감률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로 고령층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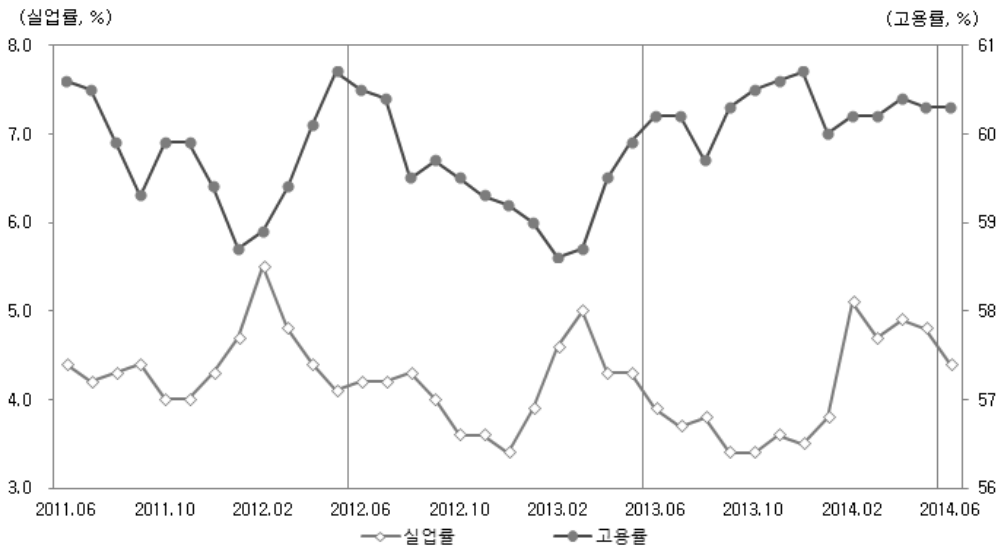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6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4%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 여자는 51.0%로 0.1%p 감소
 - 2014년 6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9%)보다 0.6%p 낮은 수준

- 서울의 6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6월 실업자는 2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8천명(13.2%)이 증가
 - 실업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0%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여자는 5.1%로 1.0%p 상승
 - 2014년 6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5%)에 비하여 0.9%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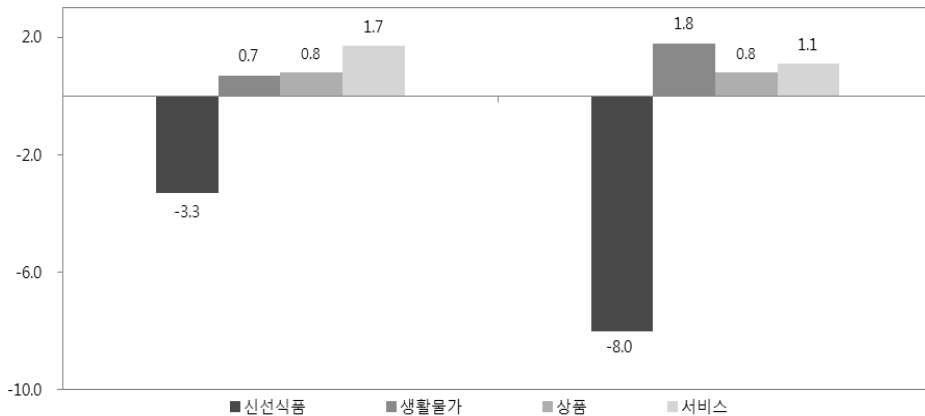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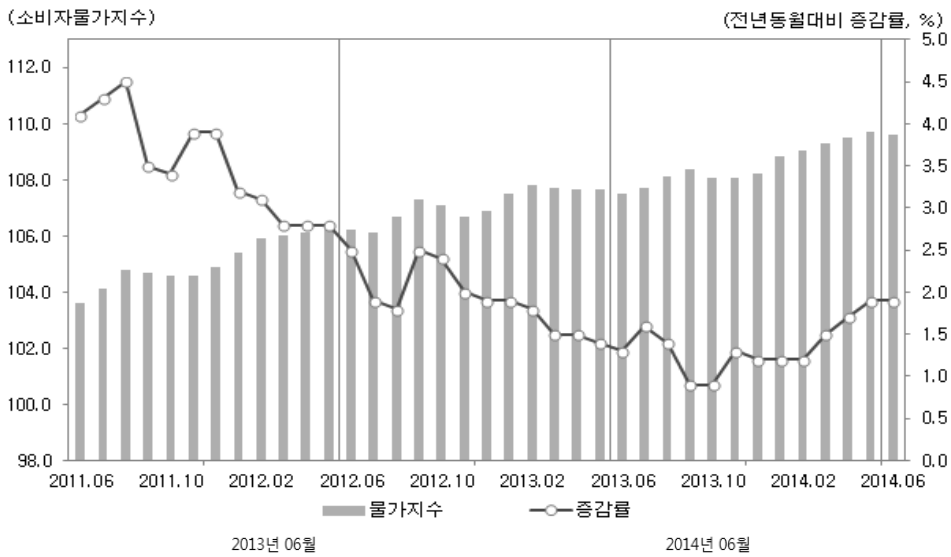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2014년 6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6(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주류 및 담배(-0.5%), 통신(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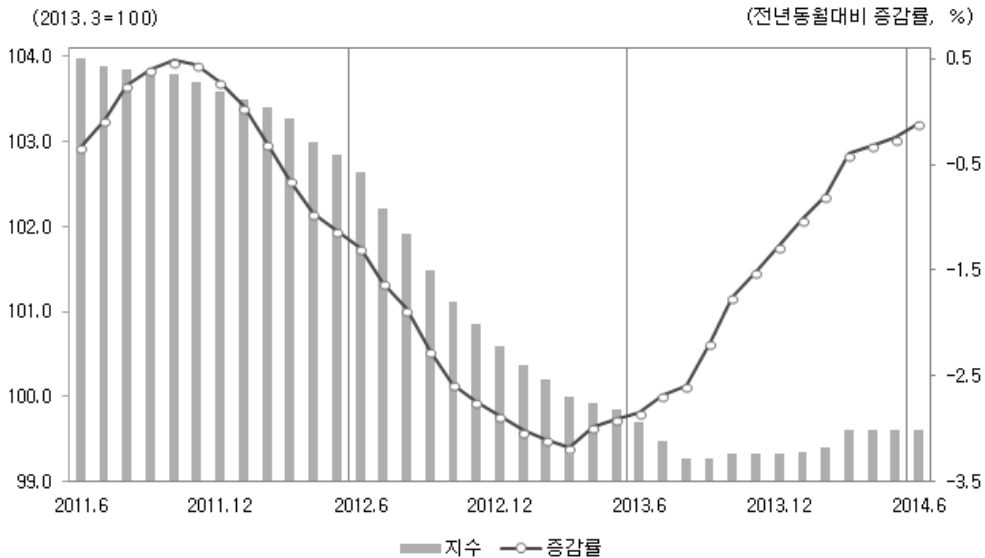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7% 감소
 - 강남지역(-0.09%), 강북지역(-0.05%) 모두 전월대비 하락
 - 주요 하락지역: 용산구(-0.32%), 강서구(-0.22%), 동작구(-0.17%), 성동구(-0.12%)
 - 아파트(-0.10%), 연립주택(-0.04%), 단독주택(-0.01%)

- 전국의 6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7% 상승
 - 광역시(0.23%)와 기타지방(0.12%)은 전월대비 상승, 수도권(-0.02%)은 전월대비 하락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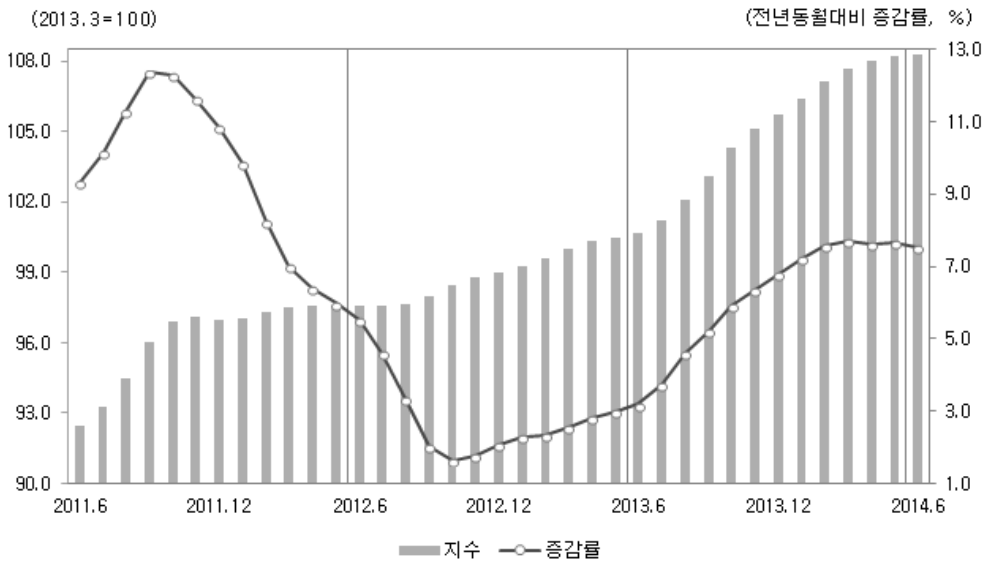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감소,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매매가격(1,630.8만원)은 전월(1,631.0만원)대비 0.01% 감소
 - 매매거래건수(5,189건)는 전월(6,068건) 대비 14.5% 감소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6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09% 상승
 - 강북지역(0.19%) 전월대비 상승, 강남지역(-0.01%) 전월대비 하락
 - 상승률 상위지역: 동대문구(0.35%), 광진구(0.34%), 영등포구(0.34%), 구로구(0.19%)
 - 연립주택(0.10%), 아파트(0.09%), 단독주택(0.07%)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6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17% 상승
 - 광역시(0.24%), 수도권(0.17%), 기타지방(0.11%)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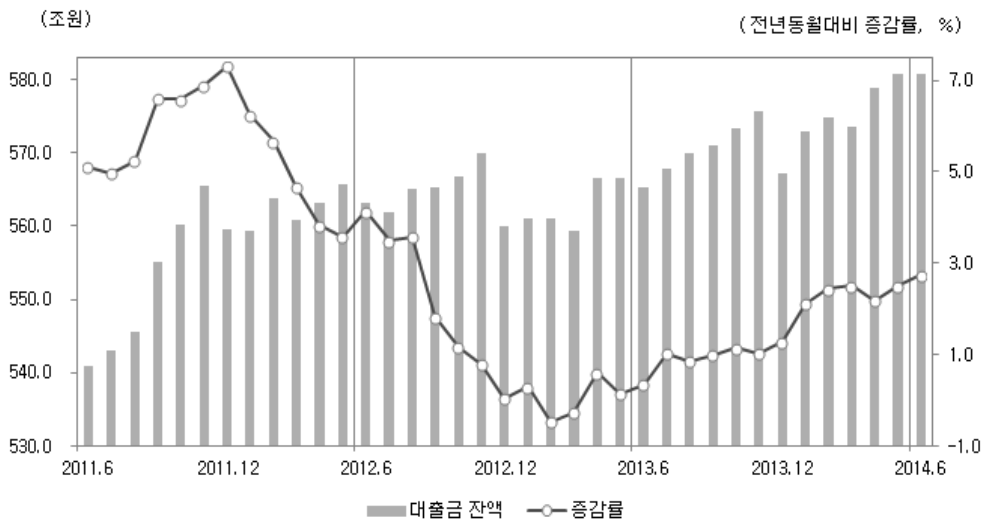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6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1,012만원)은 전월(1,010만원)대비 0.2% 증가
 - 전세거래건수(7,681건)는 전월(9,273건) 대비 17.2% 감소

| 가 · 계 · 대 · 출 |

- 6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580조 7,097원)은 전월(580조 7,137억원)대비 0.001% 감소
 - 그 중 예금은행(477조 4,316억원)과 비예금은행(103조 2,781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증가, 4.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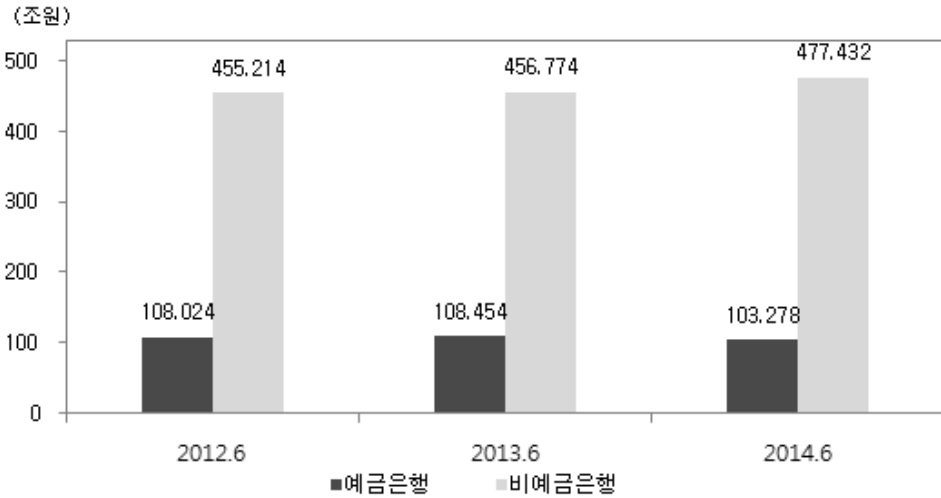
- 6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566조 1,390억원)은 전월(1,559조 2,794억원)대비 0.4%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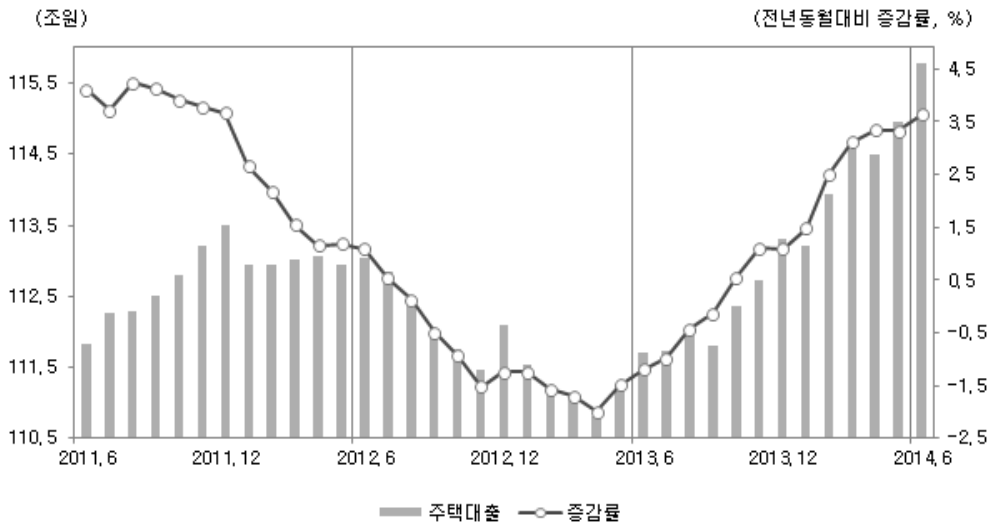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6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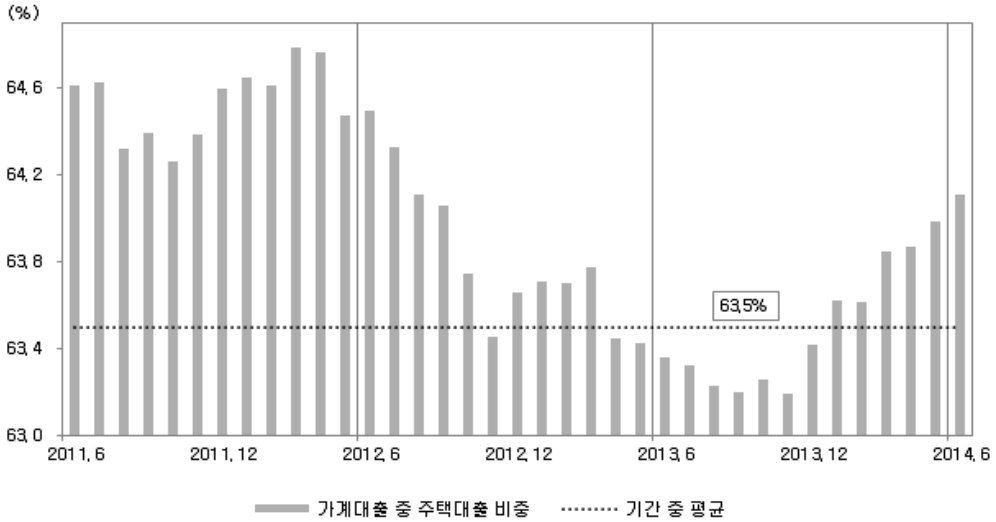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80조 5,806억원)은 전월(179조 6,320억원)대비 0.5%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5조 7,676억원)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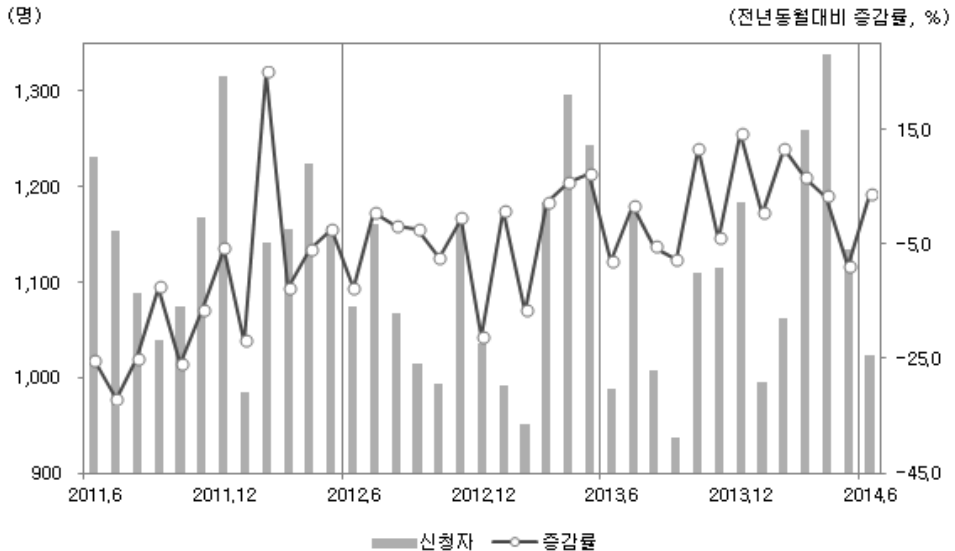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6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1,024명)은 전월대비 9.7% 감소,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5.0%)은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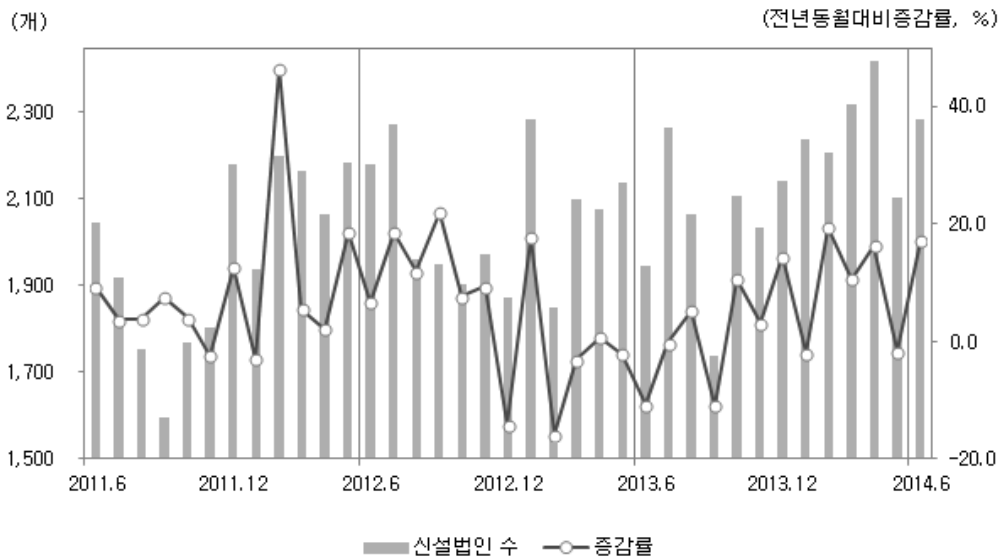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신·설·및·부·도·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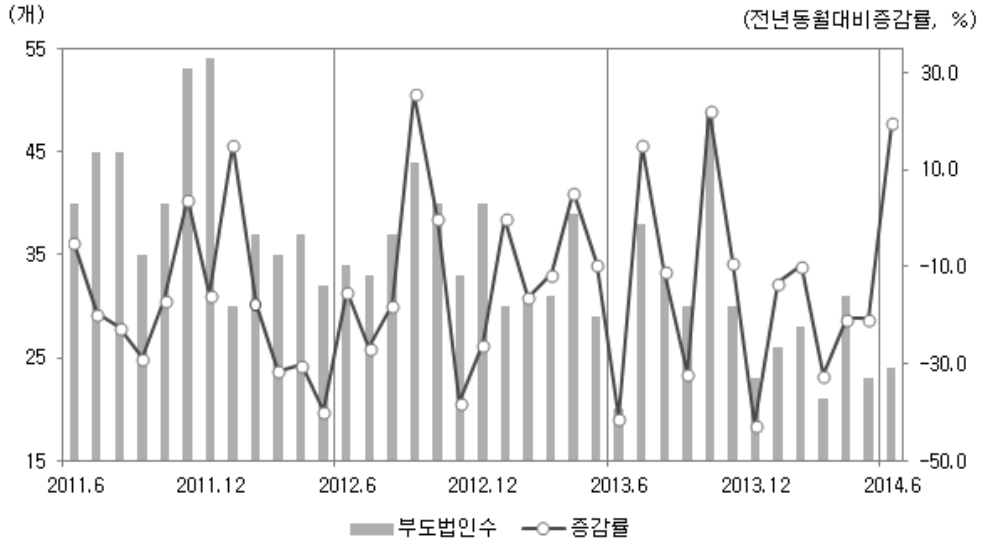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284개로 전월대비 8.6%(181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17.3%(337개) 증가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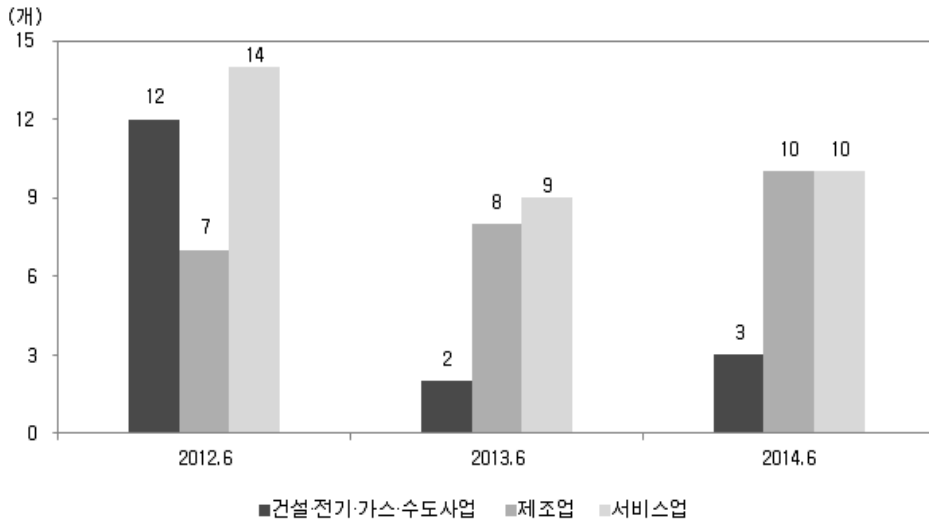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 서울의 6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4개로 전월대비 4.3%(1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20.0%(4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11.1%(1개) 증가,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보합 수준이며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25.0%(1개) 감소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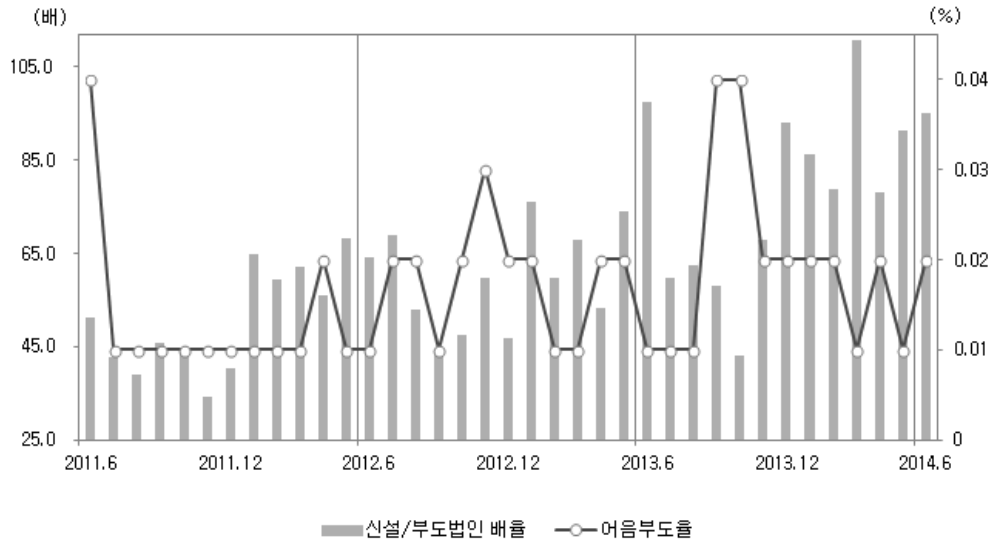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6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95.2로 전월(91.4 배)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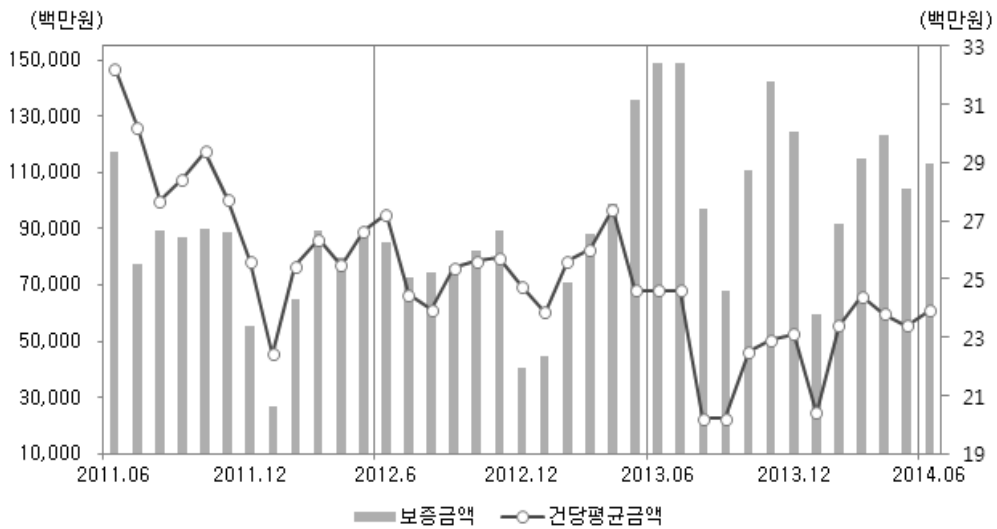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6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13,117백만원, 4,740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8.5%, 6.3%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2.1% 증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 모두 23.9% 감소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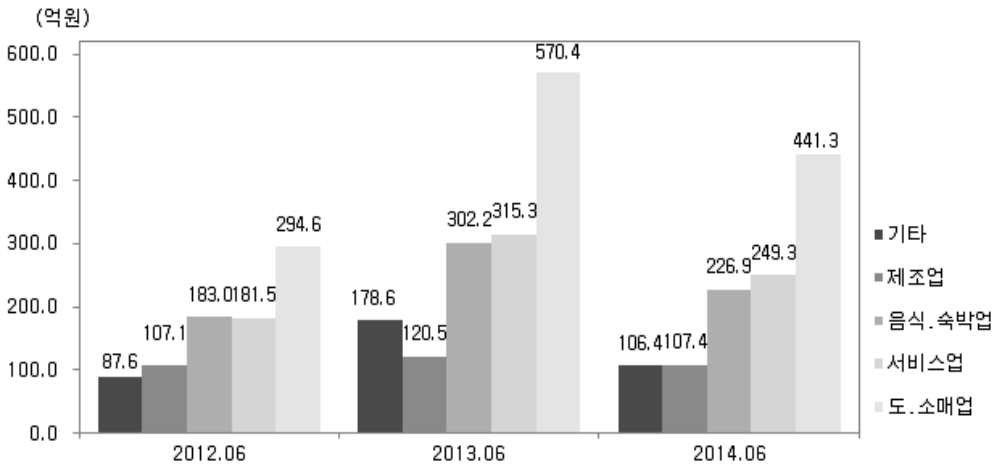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6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 6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5%로 전월(9.7%) 대비 0.2%p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9.0%로 전월대비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8%로 전월(7.5%)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5.3%로 전월(35.8%)대비 0.5%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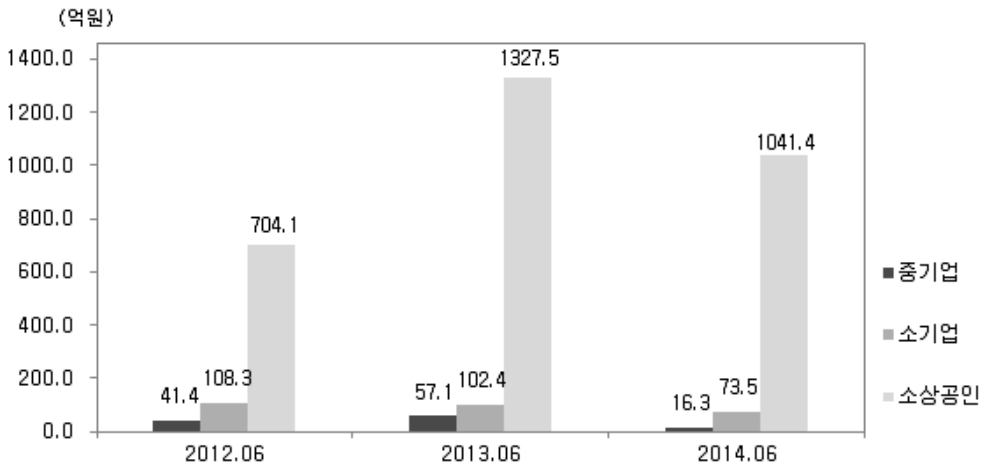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92.1%로 전월대비 3.2%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6.9%로 전월대비 0.6%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5%로 전월대비 2.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2.8%로 전월대비 0.4%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4%로 전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3%로 전월대비 0.4%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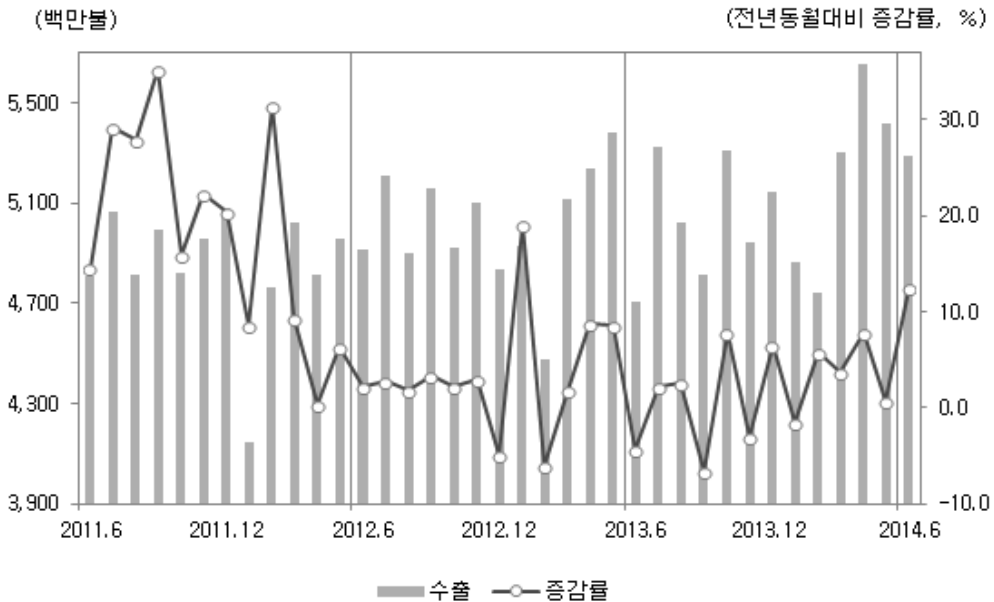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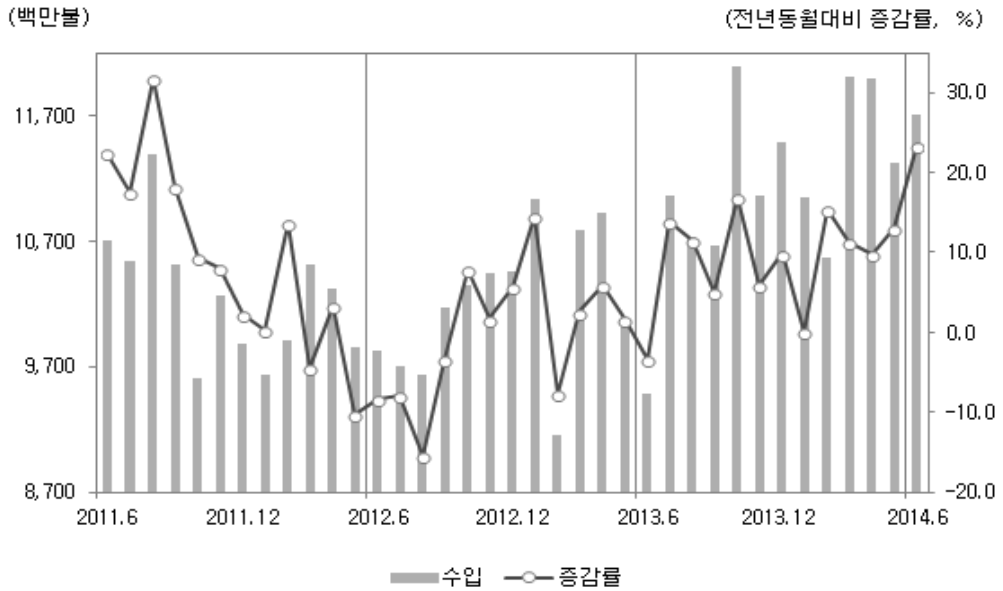
- 서울의 6월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2.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하였고 수입은 117.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78.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고 수입은 424.0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서울의 6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486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수지, 반도체,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062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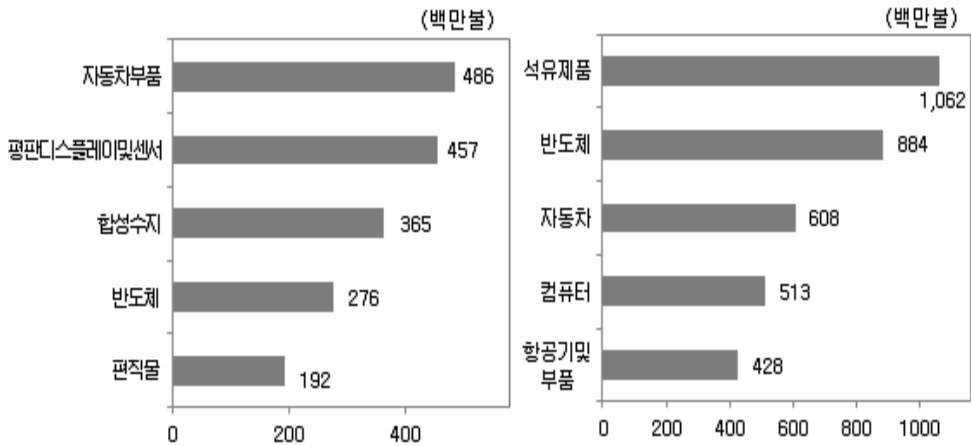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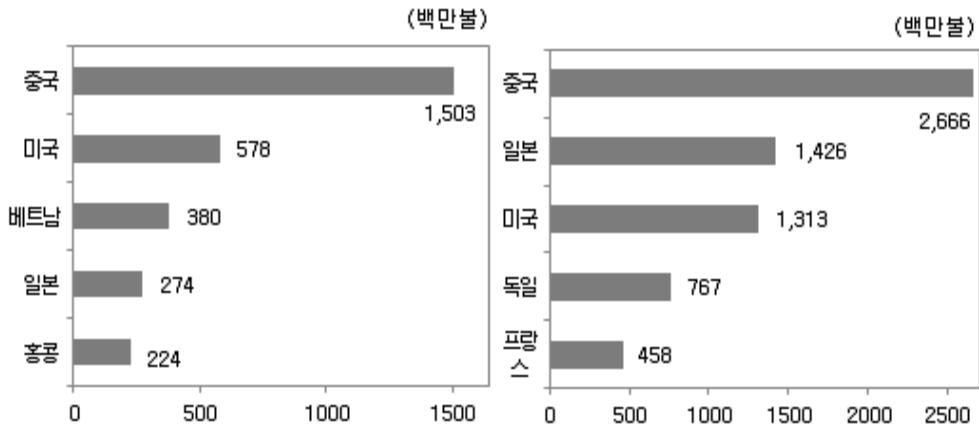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6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6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8.4% 증가한 1,503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28.2% 증가한 2,666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6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6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6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4년 6월 서울시 소비지물기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4년 6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4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4년 6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4년 6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4년 6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4년 6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4년 6월 소비지물기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4년 6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4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